정호와 필영이의 동행 (네번째 이야기)

BOSTON CAMPUS MINISTRY

◈ CMB(보스턴 캠퍼스사역)팀 소식

1. 박지훈 간사 파송의 밤

3월 19일 저의 모교인 동막교회에서 박지훈간사의 파송예배가 있었습니다. 3월 초에 종교비자를 먼저 받고 미국 텍사스 YWAM(예수전도단)베이스에서 SOE(학교전도훈련)라는 훈련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출국을 결정한 박지훈 간사를 선교사로 축복하고 파송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안식년 중이신 CMI(국제대학생선교)책임자이신 존경하는 홍장빈 간사님께서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미국비전그룹 학생으로 구성된 찬양팀과 함께 찬양인도로 예배를 섬겼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파송의 시간은 참으로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선교사로서 자신의 파송예배를 꿈꿔왔던 박지훈간사는 어느 교회도 어느 단체도 선교사로 파송해주지 않았지만 몇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단지 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없는 현실과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기도하는 안타까움과 또한 미국이, 보스턴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선교지**인지를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한계가 때론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지만 한가지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힘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홍장빈 간사님께서도 지역개념의 선교흐름에서 전략적개념의 선교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미국은 전 세계 차세대 지도자들의 집결지로 미국대학사역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약 80만명의 유학생 그 중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도,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동 국가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은 선교가 필요한 국가**입니다.

파송의 밤을 은혜롭게 마치고 3월 23일 박지훈 간사의 가정이 팀원중 제일 먼저 미국땅을 향해 출국했습니다. 이제 남은 두 가정이 그 뒤를 따라 미국땅을 밟을 것입니다. 아직 미국에서 승인이 나오지 않은 박성원 간사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팀으로 부르셨고 같은 비전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CMB팀을 사용할 실 것을 신뢰합니다.

◈ 정호와 필영이의 도전...

1. 종교비자 그 기나긴 기다림

2009년 3월부터 저희팀은 종교비자를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해 5월 미국에 들어가 직접 비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기도 했고 미 이민국에 이상없이 제출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약 2~3개월 소요된다고 하던 심사가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비자 중 가장 받기 힘들다는(거절율 1위) 종교비자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팀의 하나님됨을 준비시키셨고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잡게 하셨으며 미국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09년 12월 박지훈 간사의 비자가 승인되었고 2010년 1월 저의 가정의 승인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년 가까이 기다린 비자승인 소식이 저희들을 기쁘게 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오랜 시간을 함께 기다려준 보스턴 베이스(지부)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바다 건너 먼 곳에서 우리를 위해 고생이 많았던 베이스 사람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들과의 커뮤티케이션은 참 쉽지 않았지만 우리들도 그들도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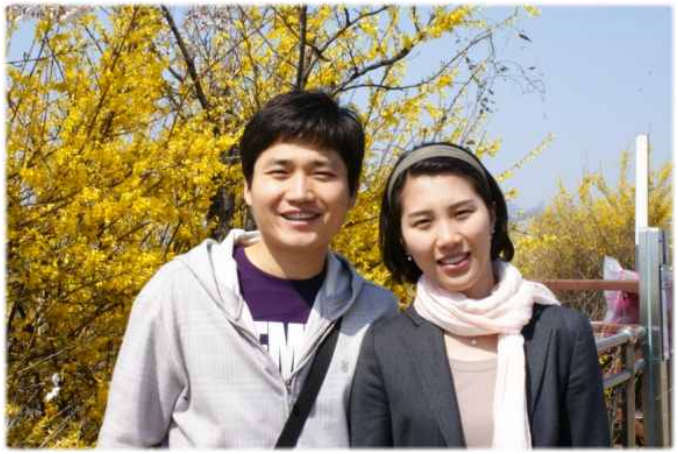
4월 2일 저와 아내는 비자 발급의 마지막 관문인 대사관 인터뷰를 보았습니

다. 1월 비자승인 이후 인터뷰에 필요한 각종 서류 준비와 박지훈 간사 파송을 준비하고 4월이 되서야 인터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보는 날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인터뷰를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영사들에게 비자를 받는 것이 참 쉽지 않아보였습니다. 저희들의 차례가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되는 것을 보았고 30분 가까이 끈질기게 질문하며 인터뷰를 하는 영사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순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아내는 함께 기도하자며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사도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인터뷰 순서가 되었습니다. 짧은 영어 인사를 하며 시작된 인터뷰는 채 5분도 안되서 끝났습니다. 간단한 질문 3개를 하고 저의 대답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수고 했다고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마치 통과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너무도 쉽사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려고 마음먹으면 안되는게 없구나'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 가까이 기다린 **비자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길었던 그 기다림..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2. 주님의 때 그리고 내려놓음

세번째 기도편지를 기억하시나요? 저희 가정이 평생 대학생 선교를 위해 살겠다고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전공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선교지로 가 교수로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는데 쓰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사역과 동시에 캠퍼스로 진학해서 대학생들을 제자훈련에 연결하고 캠퍼스 예배를 일으키는 컨넥터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을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2011년에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했으나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둘째는 1년을 기다린 보스턴 베이스에서 저희들의 출국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출국을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출국과 사역준비를 해야하는 저는 대학원 진학을 내려놓고 전임사역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기존 계획대로 사역 타겟이 되고 있는 대학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 9월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고 학비도 낼 재정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들어갈 대학이 보스턴 내 80여개의 대학을 변화시킬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3. 출국시기와 도전의 시작

출국 시기는 7월 초로 결정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박지훈 간사의 훈련이 7월초에 끝나 그 때 함께 보스턴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출국까지 남은기간동안 후원자를 세우고 아내의 진학준비를 좀 더 해야하는 상황이라 그 때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권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6월말에 있을 MC(미션컨퍼런스)를 끝으로 바로 출국할 것 같습니다.

4. 거대한 재정의 장벽과 믿음의 싸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미국은 참 잘사는 나라입니다. 경제규모면에서나 국민소득수준면에서나 아직도 한국과의 격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보스턴

은 미국 50개주안에서도 뉴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물가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희들에게 **더 높은 믿음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선입관으로 타 국가에 비해 재정지원을 받기도 힘든 상황에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재정의 규모는 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편지를 통해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대학사역은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분명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국 대학사역을 기대하고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230만원의 **항공료**와 1200만원의 **정착비**, 그리고 매달 200만원의 **정기후원**이 저희가 감당해야 할 재정입니다. 높고 거대하게만 보이는 재정의 장벽은 주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여리고 성과 같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니 분명 이 모든 재정도 **하나님께서 능히 채우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감사의 제목들

1. 어머니께서 3월 15일 급격히 시력이 안좋아지면서 급하게 병원을 찾았고 시신경염이라는 판정을 받고 입원을 하셨습니다. 1주일동안 입원하시면서 독한 약으로 몸이 심하게 부으시고 시신경이 압박되어 눈앞에 있는 것조차 제대로 보시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안좋아지셨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도 혹시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으면 뇌쪽에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셔서 두려움이 더 커졌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밖에 나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막는 모든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 차도가 좋아지셔서 1주일만에 퇴원하시고 시력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거의 시력을 회복하셨고 전에는 무관심하시던 건강에 대해서도 더 신경쓰시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고 계시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저의 교회 주일 4부 예배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초 처음 시작할 때 인원 5명과 임시반주자를 세워가며 어렵게 첫발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찬양팀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예배의 부흥을 위해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큰 본당에서 드리는 정식예배에 비해 참 조촐한 예배팀이었지만 이 팀이 현재는 10명의 적지 않은 인원에 헌신도 높은 예배팀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제가 7월에 출국해야하는 상황에서 다른 리더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가야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이 팀을 청년부안에 그리고 교회안에 큰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 기도해주세요 ~ ♡

1. 굳건한 믿음으로 정호, 필영이가 주님 안에서 **매일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2. 보스턴 베이스와의 **관계 안에 기름 부으시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저희의 발걸음이 **양가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며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3. 필영이 **토플, GRE시험 준비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또 **시험응시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4.. **항공료** 230만원의 재정을 **4/23(금)**일까지 채워야 합니다. 기도해주세요.

5. 정기적인 **기도와 재정 후원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클럽: http://club.cyworld.com/hoyagogo
정호 : ryan7657@gmail.com / 010-9193-7657
필영 : carrotpy@naver.com / 010-9230-9928

◇후원계좌: 농협중앙회 766-12-104757 / 조정호
시티은행 120-05348-268-01 / 김필영

◇CMS정기후원: 연말정산 기부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공식 후원제도입니다. 저희들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